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 Home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첫째 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3.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새날을 향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경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찢겨지고 부서진 상처 속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심을 믿기에, 찬바람이 부는 세상 한복판에도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으심을 알기에 저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눈을 감고 세상을 봅니다. 어둡고, 힘들고, 차갑고, 외롭고, 답답하다고 버릇처럼 불평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휘황한 세상의 불빛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하늘빛을 바라보며 천국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1 …… 인도자

♠ 교 독 문 …… 43. 마태6장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조관행 집사 Ⅱ.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332. 나 행한 것 죄뿐이니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마12:33-37 …… 인도자
Ⅱ. 마3:13-17 이순정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씀 …… **Ⅰ. 말의 평화** …… 김재흥 목사
Ⅱ. 하늘과 땅의 상통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투덜거림을 멈추고 감사와 사랑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꾸준히 선을 행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요, 작품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 강좌(36)	신명기 강해(27)
기도 : 곽혜자 권사	기도 : 윤정덕 장로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윤정덕 장로	인도자 허정윤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용길	곽혜자	허정윤	박미영
	헌금위원	윤정덕	김준호	안길상	임창선	김성자	송양진

▣ /믿/음/으/로/읽/는/글/

하루살이 기독교인의 삶

새해에는 건강과 부와 명예에 더하여 더 많은 복을 주십사 구복적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고 있기라도 하듯 시인은 고백한다.

재산을 잃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잃지 않기를. 병들어 괴로워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심하지 않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족하리이다. 내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내 소유로 삼는 것. 오직 그뿐이다.

내 불행의 극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나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빈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거룩한 뜻이 내게 전달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큰 교회 짓기를 경쟁처럼 하는 한국교회는 시인의 이 노래에 어떻게 화답할까?

첨탑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풍금이 음악을 연주하는 그윽한 곳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효자가 가난한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추운 밤 물건을 파는 곳, 이곳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아내가 남편 병을 걱정하여 동천이 아직 밝기도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곳, 이곳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세상의 오해를 받아 사방에서 공격해 올 때, 벗이 있어 홀로 서서 그를 변호하는 곳, 이곳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아아, 하나님의 교회를 흰 벽이나 붉은 기와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의 어리석음이여.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같이 넓고 세상에 선인이 많은 것처럼 많다.

작게는 부동산 투기로 한몫 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더 배짱 좋은 이들

은 땅 때문에 전쟁도 마다 않는 이 세대에게 시인은 말한다.

땅은 인류의 거처라고 하나, 그렇지가 않다. 땅은 인류의 묘지이다. 그의 거처는 다른 곳에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에게 있다. ……땅을 두고 분쟁하는 자가 누군가. 정치는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은 묘지를 서로 쟁탈하려는 것이 아닌가. 영원한 거처를 가진 우리는 기꺼이 당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9kg 살을 빼면 디오르 제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아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목숨 걸고 살빼기 프로젝트에 임한 이웃 여자와 그 남편에게 시인은 말한다.

아내를 대접하는 길은, 화려하고 빛나는 보석들을 안겨주는 게 아니며, 따로 시중드는 사람을 고용하여 고귀한 차림으로 치장하게 하는 게 아니다. ……아내를 대접하는 길은 그 고귀한 품성을 위로하는 데에 있지, 그 천박한 허영심에 호소하는 데에 있지 않다.

얼마 전에도 임파선 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이번에는 또 자궁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 같다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내 절친한 친구에게도 시인은 기독교인의 자유함을 가르쳐준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인이 특별한 요청을 하고 특별한 의무를 맡긴 자이다. 따라서 신자는 이 의무를 다할 때까지는 죽어서는 안 된다. 또 그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천직을 마칠 때까지는 불멸한다"는 리빙스턴의 말은 곧 신자의 확신이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내 주인이 맡긴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

"이제껏 신자의 생애를 인도해 오시면서 단 한 번도 오류를 범하지 않으신 그의 하나님은, 신자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인 죽음의 시기를 정하실 때에도 결코 틀리지 않으신다.

(우찌무라 간조의 『일일일생』을 읽고 쓴 백소영의 독후감 일부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찌무라 간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마/음/으/로/읽/는/글

구걸자

어떤 거지가 시골길에서 이 집 저 집으로 구걸하면서 다니고 있었다. 그때 마침 마차 한 대가 화려한 꿈같이 멀리서 나타났다. 거지는 이 왕 중의 왕이 누구신가 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지는 문득 희망이 부풀어올라서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황금 마차는 거지가 서 있는 곳에 와서 멈춰 섰다. 마차에 타고 있는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임금님의 눈동자가 거지의 눈동자와 마주치고, 임금님이 웃으면서 마차에서 내려왔다. 거지는 자기 생애에 드디어 행운이 찾아왔다고 느꼈다.

그 순간, 마차에서 내려선 임금님이 별안간 오른손을 내밀며 말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거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임금님이 거지에게 무얼 달라고 손을 내밀다니!

거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다가 때가 꼬질꼬질한 자기 손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낟알 중 제일 작은 것 하나를 꺼내어 임금님에게 바쳤다. 임금님은 그것을 받더니 다시 마차를 타고 사라졌다.

곧 날이 저물었다. 그는 자기 움막으로 돌아와 전대를 풀어 마룻바닥에 쏟았다. 온종일 그가 구걸한 초라한 무더기 속에 작은 금싸라기 한 알이 반짝였다.

거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바로 자기가 임금님에게 바친 작은 낟알이 변해서 금싸라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후회의 눈물을 쏟으며 탄식했다.

"내가 임금님께 모든 것을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 <기탄잘리>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오진훈 노순옥 김근종 정옥영 정복순 임 영 정경례

월정헌금:

김남종 오복순 이호원 남현우 김은진

감사헌금:

윤주원 최윤선 조병무 송양진 서정순 한상익 정영선 김춘려 최윤희
백묘현 김용진 박효선 이인섭 임 영 정경례 김남종 오복순 김철수
정완수 김재광 김기석 김희우 김윤수 박옥겸 정복순 염혜영 박규석
강인식 김정숙 이정은 한선희 유증희 이재문 정미경 박옥식 최주환
문복순 박홍재 홍순구 안홍숙 박순성 박상규 최인환 오진훈 노순옥
김중수 이순정 이봉옥 박홍엽 김종구 신영재 김재흥 최희영 방정자
박재실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곽혜자 권 순 윤정화 **구도헌금:** 김철수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쉼	쉼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의무금봉헌 :**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일년 동안 바칠 의무헌금을 작정하여 봉헌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재무부회의 :** 재무부 회의가 오후 집회 후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4.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등급사경회가 1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M.Y.F.는 오전 9시, 장년부 낮반은 12시부터, 저녁반은 7시부터 시작합니다.
5. **구역회 :**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는 구역회가 1월 16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각 부 부장, 남녀선교회 회장 대표, 청년회 회장, 교회학교 교장, 당회서기, 감사입니다.
6. **교육부회의** : 2005년 교육부회의가 다음 주일 구역회 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의 참석 바랍니다.
7. **새벽기도회 :** 화요일부터 <욥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8. **신앙실천 :** 평화는 남이 나의 뜻대로 바뀌기를 바라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웃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선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지난주에 봉헌한 재해헌금 400만원은 월드비전을 통해 동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헌화 : 김중수 권사 (범사에 감사)
* 커피대접 : 김진혁 이현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